

용의 전설을 따라

용두암에는 신성한 힘을 가진 상상 속의 동물인 용의 이야기가 전해온다. 하늘로 오르지 못해 바위가 되었다는 용의 전설은 자연이 만든 신비한 바위의 유래를 이야기로 풀어낸 옛 선조들의 상상력을 엿볼 수 있다.



용두암길 | 제주시 용담2동 481-11 ~ 제주시 용담2동 367-27(약 0.7km)

용연길 | 제주시 용담2동 576-2 ~ 제주시 용담1동 318-2(약 0.4km)

용담로 | 제주시 용담2동 951-12 ~ 제주시 용담1동 219-11(약 1.5km)

동한두기길 | 제주시 용담1동 2-6 ~ 제주시 용담1동 392-2(약 0.5km)

용한로 | 제주시 용담1동 306-10 ~ 제주시 용담1동 2-9(약 0.8km)

비룡길 | 제주시 용담1동 119 ~ 제주시 용담1동 334(약 0.4km)

서문로 | 제주시 용담1동 145-1 ~ 제주시 용담1동 306-10(약 0.8km)

용마로 | 제주시 용담3동 932-17 ~ 제주시 용담3동 515-2(약 0.4km)

용문로 | 제주시 용담2동 1590-3 ~ 제주시 용담2동 2678-2(약 1.7km)

용화로 | 제주시 용담2동 624-9 ~ 제주시 용담2동 883-4(약 0.6km)

성화로 | 제주시 용담2동 885-21 ~ 제주시 용담2동 931-7(약 0.4km)

흥운길 | 제주시 용담2동 624-15 ~ 제주시 용담2동 454-2(약 1km)

어영길 | 제주시 용담3동 2292 ~ 제주시 용담3동 1233-7(약 0.7km)

용두암길 | 용두암

용두암길은 용두암 관광지로 이어지는 길이다. 용의 머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용두암이라고 불리는 이 바위에는 여러 이야기가 전해온다. 옛날 바닷가에 용이 되고 싶은 백마가 있었는데, 그 소문이 퍼지자 마을에서 힘 센 장사가 백마를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백마는 사람이 나타나면 물 속에 들어가버리곤 했다. 그래서 장사는 피를 내어 사람처럼 꾸민 허수아비를 세워두었다. 허수아비의 모습에 점점 익숙해진 백마는 나중에는 사람이 나타나도 바닷속으로 숨지 않게 되었다. 장사는 이때를 노려 백마를 잡았다. 백마가 달아나려고 발버둥을 치자 하늘에서 천둥이 치고 먹구름이 몰려오더니 비가 역수로 쏟아지고, 바람이 심하게 불었다. 날이 갠 후 바다에는 물 속에 잠긴 백마의 머리만 바위로 굳어있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한라산에 불로초를 캐러왔던 용왕의 사자가 한라산신의 화살에 맞아 머리만 물 위에 굳었다고도 하고, 하늘로 올라가려던 용이 산신의 활에 맞아 바다로 떨어져서 머리가 바위로 굳었다는 이야기도 전한다.



용두암

용연길 | 용연

용연길은 용이 사는 연못이라는 전설이 내려오는 용연(龍淵)을 가로지르는 길이다. 한라산에서 이어진 하천이 바닷물과 만나는 곳인 용연은 항상 물이 차 있어 사람들이 경치를 감상하거나 물놀이를 하러 자주 찾았다. 용연은 절벽과 물, 나무 등이 만들어내는 풍경이 아름다운 곳이다. 그래서 옛날 제주목사나 선비들, 그리고 유배인들까지 풍류를 즐기던 곳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달이 뜬 밤에 배를 띄워 유유히 감상하는 경치는 용연야범이라고 해서 절경으로 꼽히는데 <탐라순력도>의 병담범주 편에 밤배 놀이를 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다. 마을에서는 매년 용연에서 용연선상음악회를 연다. 제주의



용연

전통배인 테우와 덕판배로 무대를 만들고 수려한 선율과 용연의 아름다운 정취, 사람들이 어우러져 운치를 더한다.

용담로 | 용담동

용담동(龍潭)은 마을 안에 용이 사는 연못이라는 용연이 있어 불린 이름이다. **용담로**는 이 마을의 이름에서 따온 것이다. 용담 지역은 선사시대부터 사람들이 살던 곳이라고 한다. 고인돌을 비롯해 여러 유적들이 발견되어 탐라시대 이전부터 이어져오는 용담의 오래된 역사를 말해주고 있다.

용담에는 열두 명의 신을 모시던 내왓당이라는 당이 있었다. 한천 인근에 있었다고만 알려져 있고 정확한 위치는 알지 못한다. 내왓당의 무신도가 남아 있어 대략적인 신들의 모습과 역할을 추측할 수 있다. 전해오는 말에 의하면 내왓당은 제주시의 광양당, 대정의 광정당, 정의의 성황당과 더불어 제주에서 중요한 당의 하나였다고 한다. 하지만 조선시대 무속에 대한 억압이 심해지면서 맥이 끊기고 말았다. 현재 내왓당 무신도는 제주대학교 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다.

동한두기길 / 용한로 / 비룡길 | 동한두기



서자복

용연의 동쪽에 나 있는 **동한두기길**은 이 지역의 마을 이름에서 따온 이름이다. 용연 인근의 마을을 사람들은 한두기라고 불렀다. 용담에서 가장 먼저 마을이 생긴 곳이라고 알려져 있다. 처음에는 ‘큰 웅기처럼 생긴 둔덕이 있는 마을’이라는 의미로 한독(大獨)이라고 했는데, 사람들 사이에 구전되면서 ‘이’가 붙고 발음하기 편하게 ‘한두기’로 불렀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마을 안에 있는 한천의 머리 부분이라는 의미로 한두(漢頭)라고 했다고도 하고, 큰 독이라는 의미로 ‘한독이’라고 했던 것이 한두기로 변했다는 이야기도 있다. 지금은 용

연을 기준으로 동쪽을 동한두기, 서쪽을 서한두기라고 구분해서 부른다. 한두기 지역에서 용담1동으로 이어지는 **용한로**는 용담1동과 한두기의 이름을 조합해서 붙여진 이름이다.

동한두기길에 있는 용화사에는 2m가 넘는 커다란 돌상인 서자복이 있다. 복신미륵, 서미륵이라고도 불리는 이 불상은 건입동에 있는 동자복과 쌍을 이룬다. 마을 사람들은 서자복에 정성껏 제사를 지내며 바다에서의 안전과 농사의 풍요, 가족의 안녕을 빌었다. 1702년 이형상 목사가 제주의 절들을 엮을 때 서자복이 있던 해륜사도 헐리고 말았지만 서자복에 대한 신앙은 면면히 이어져 내려왔다. 마을 사람들은 이 불상을 자신들을 지켜주는 수호신처럼 여겼을 것이다. 지금은 제주도민속문화재 1호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

동한두기길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비룡길**은 과거 이 지역에 용이 날아가 버린 연못이라는 비룡못이 있어서 붙인 이름이다. 이 연못은 서문공설시장 인근에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지금은 매립이 되어 버리고 놀이터만 남았다고 한다. **비룡길**은 용연으로 흘러가는 하천과 만난다. 그래서 비룡못에 살던 용이 용연에 자주 드나들었을 것이라는 상상을 하게 한다.

서문로 | 제주성 서문

서문로는 중앙로의 서쪽으로 이어지는 길로 옛 제주시의 서문이 있던 곳을 지나는 길이다. 서문은 제주성의 서쪽 지역을 왕래하는 문으로 사용되었다. 제주성이 헐리면서 함께 사라져 지금 흔적은 찾아볼 수 없다. 서문로에는 제주향교가 있다. 향교는 조선시대 대표적인 지방교육기관으로 제주도에는 제주향교와 대정향교, 정의향교가 있었다. 이 교육기관들은 공자를 비롯한 유학의 선현들을 모시고 기숙사 등을 마련해 학생들이 학문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다. 제주향교는 1392년 조선이 건국되던 해에 세워졌고, 이후 몇 번 옮겨지다가 현재의 위치에 자리잡았다.



서문공설시장

제주향교 맞은편에는 서문공설시장이 들어서 있다. 서문공설시장은 50년이 넘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1960년대에는 인근에 시외버스터미널과 각종 관청, 대학이 있어 호황을

누렸다. 하지만 이후 터미널이 이전하고 중앙로의 상권의 발달과 관청들이 대거 이전하면서 침체기를 겪었다. 최근 들어 서문공설시장은 트렌드에 발맞춘 다양한 마케팅을 시도하면서 자신만의 경쟁력을 키워나가고 있다.

용마로/용문로/용화로/성화로/홍운길/어영길 | 용담의 마을길

용마로는 용마마을의 중심을 지나는 길이다. 제주대학교 사범대학 부설고등학교 서쪽에 있는 용마마을에는 북쪽 바닷가에 말머리를 한 바위가 있었다고 전해지는데 해안도로 공사를 하면서 사라졌다고 한다. 용마마을은 6·25전쟁으로 피난을 온 사람들이 제주성 안에 모여 살다가 이 부근으로 이주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었다. 용마마을 안에는 ㄱ디싱빌레라고 부르던 곳이 있는데, 넓은 바위 지대를 말한다. 이곳은 고려시대 원나라의 제주 지배와 관련이 있는 곳이라고 한다. 원나라는 고려와의 연합군으로 삼별초를 몰아내고 나서 탐라총관부와 다루가치부를 설치하고 제주를 직할지로 장악하려고 했다. 이 다루가치부가 ㄱ디싱빌레 인근에 있었다고 전한다. 제주성과 멀지 않은 곳에 원나라 출신 다루가치를 두어 제주에 대한 간섭을 하려고 했을 것이다. 제주는 그 때부터 약 100년 간이나 원나라의 지배를 받게 된다. 제주에서 몽고와 유사한 풍습을 다수 찾을 수 있는 것도 이때의 영향 때문이다.

용문로는 용문마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뜻이다. 용문마을은 서문치안센터 주변의 원화, 월라, 용화, 동산 마을을 통칭하는 이름이다. 원화마을은 서문파출소 남쪽에 위치한다. 1980년대 제주공항이 확장되면서 살 곳이 없어진 사람들이 이곳으로 이주해 살면서 마을의 규모가 커졌다. 원화(元和)라는 마을의 이름은 주역에서 따온 것이라고 한다. 원화마을 남쪽에는 월라마을이 있다. 이 지역을 예전에는 드라리라고 불렀다고 한다. 인근에 있는 비석에 월라(月羅)라고 표시된 것이 있어 ‘달’이라는 뜻과 ‘라’의 소리를 따와 드라라고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용문로터리에서 **용문로**와 만나는 **용화로**는 용화마을로 이어지는 길이다. 용화마을은 옛 날에 아홉 식구를 거느린 동낭아치가 살았다고 해서 ‘아홉 동낭아치 동네’로 불렸다. 이곳은 4·3사건으로 소개된 중간산마을 사람들이 이주해 살면서 생겨난 마을이다. 이후 1970년대에 용화(龍花)라는 이름을 마을 이름으로 사용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동산마을은 동산물이 있던 마을을 말한다. 동산물의 서쪽에 높은 지대가 있어 동산이라는 이름이 붙었다. 동산물은 한천 안에 나란히 있던 세 개의 물웅덩이다. 가장 상류의 물은 식수로 사

용했고, 가운데는 목욕이나 빨래를 할 때, 그리고 가장 아래의 물은 말이나 소를 먹이는 물로 사용했다고 한다.

성화로는 성화마을의 이름을 반영한 길이다. 이곳에 마을이 들어서기 시작한 것은 4·3사건 때문이었다. 소개령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중산간마을 사람들이 해안가로 내려와 이곳에 움막을 짓고 정착을 하면서 마을이 생겨났다. 새로 생긴 마을이라서 ‘새 동네’라고 불렀는데, 마을의 위치가 비행장 옆에 있어서 비행장마을이라고도 불렀다. 마을의 규모가 어느 정도 커지자 마을 사람들은 마을의 이름이 없는 것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래서 논의 끝에 화목함을 강조하는 성화(成和)마을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홍운길은 홍운마을의 주 도로를 의미한다. 홍운마을은 비행장이 들어서면서 삶의 터전을 떠나야 했던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생긴 마을이다. 제주국제공항이 있는 정뜨르에는 많은 사람들이 농사를 지으며 살고 있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에 전략적으로 정뜨르에 비행장을 만들면서 많은 사람들이 다른 마을로 이주를 해야 했다. 이때 마을을 떠난 사람들 중 일부가 용담2동주민센터 주변에 모여 살면서 새로운 마을이 형성됐다. 그래서 이 마을을 ‘새 정뜨르’라고 불렀고, 광복 이후에 마을 이름을 홍운동(興雲洞)이라고 했다. 어려운 상황을 이겨내고 새로운 터전을 마련한 사람들의 땀과 노력의 결실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어영길은 어영마을을 지나는 길이라는 의미로 붙인 이름이다. 어영마을은 용담레포즈공원 일대의 마을을 말한다. 이 마을은 옛날 넓은 바위에서 소금을 얻어 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모여 이루어진 마을이어서 어염동(漁鹽洞)이라고 불리던 것이 어영으로 변했다고 한다. 또 다른 이야기에는 어영마을 바닷가에 있는 수근연대를 지키는 병사들이 임무를 게을리 하자 제주목사가 왕의 명으로 다스렸다고 해서 어령(御令)이라는 말이 지명으로 굳어졌는데, 이것이 나중에 어영(御營)이 되었다고 전한다.

어영마을 인근은 예전에 다끄내 마을이 있었던 곳이기도 하다. 다끄내 마을은 바닷가의 돌을 깨고, 바위를 걷어내 배가 드나들 수 있는 포구를 만들었다고 해서 ‘닭은 갯가의 마을’이라는 뜻으로 ‘닭은 개’라고 불리다가 이것이 부르기 편하게 ‘다끄내’가 되었다고 한다. 한자식 표기로는 수근동(修根洞)이라 했다. 다끄내 마을은 일제강점기 때는 비행장의 부지로, 6·25 때는 포로수용소 부지로, 1980년대는 제주공항 확장으로 인한 부지로 농토가 수용되면서 어려움을 겪었다. 결국 비행기 소음으로 인해 1980년대 초반 마을 사람들이 모두 이주를 했다. 마을 사람들은 포구가 있던 곳에 ‘수근동 유적비’를 세워 과거 삶의 터전이었던 곳을 잊지 않고 기억하려는 노력을 이어나가고 있다.